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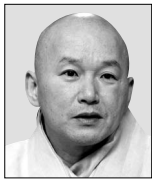
일 주 문



근대고승 유목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월정사 성보 박물관에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근대고승 유목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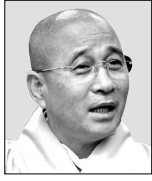
예비군승 교육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10월 12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예비군승 교육을 진행한다.



금강계단 보살계수계산림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9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043)543-4755



자유 대종사 방장 고불식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금정총림 방장 자유 스님 고불식 및 개산 대제를 거행한다. (051)508-3636



중창 36주년 기념행사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10월 13일까지 중창 36주년을 맞아 '오백나한 명호 독송기도' 및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김정기 위덕대 제6대 총장 선임



진각종립 위덕대 총장에 김정기(57세·사진) 前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10월 14일부터 4년이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증광 정사)은 9월 23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정기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위덕대 제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정기 총장은 1956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통문화 공모대상에 정민영 '완당탁목집'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이 주최하는 '제1회 원주 전통문화 공모전'의 최고상(문화재청장상)에 정민영 작가(사진)의 '완당탁목집'이 선정됐다. 고판화 박물관은 10월 2일 제 1회 원주 전통문화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상인 문화재청장상 수상자 정민영 씨는 전통 판화 작가로 철재 전통 각자보존회 회원이다.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등 다수 공모전에 입상했으며 2013년 제 1회 정민영 전통각자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서예문인 화대전 초대작가전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관음종 10일 국제학술대회, 9일 흥파 스님 회고록 봉정식도



1980년대 관음종 총무원장을 맡아 다양한 불교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조계종을 포함한 2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10월 10일 관음종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깨달음'을 주제로 인도불교 인도철학 중국불교 한국불교 종교학 등을 망라해 국내외 전공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집필, '논총'으로 엮을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흥파 스님의 70회회와 법랍 50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흥파 스님이 평소 펼쳐온 국제불교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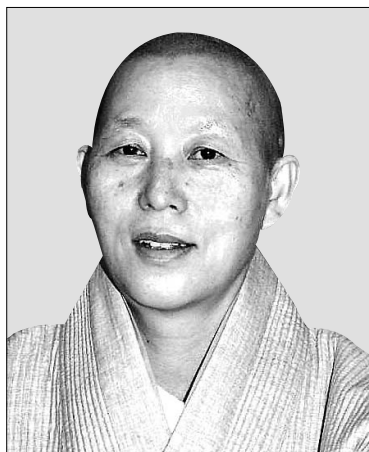
단협의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직을 종파를 초월한 불교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또 1980년대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으로 양국 학술 및 인적교류를 전개해 오고 있으며 한일불교교우회교류협회 수석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앞선 9일에는 흥파 스님의 50년 불교 행화를 담은 회고록 <현대 한국불교사 일대사 인연을 말한다 '여래의 사도 바람 따라 물결이네'>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 논총 봉정식이 개최된다.

한편, 학술세미나에서는 권기중 동국대 명예교수, 이광태 충남대 명예교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신규택 연세대 교수 등 30여 학자들이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조명한다. 노덕현 기자

'음식에 담긴 정신, 맛과 함께 음미해야'

사찰음식 시연회 여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사찰음식 만들기 및 시식체험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 사찰음식 교육과정 보급 앞장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마음씀도 바뀝니다. 사찰음식의 전통이 살아있는 진관사에서 음식을 맛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서울 진관사가 10월 9일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시연회'를 연다. 사찰음식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이번 사찰음식 시연회가 각종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한 사찰음식 시연회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고 소개했다.

이날 진관사에서는 낮 12시부터 두부 김밥, 인절미 등 사찰음식 만들기과 곤드레밥, 연잎밥 등 사찰음식 시식 체험, 승마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에는 2500명, 두 번째 시연회에는 4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계호 스님은 "특히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부터 건강에 좋고 맛있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돼 가족 단위의 참가가 많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러한 행사가 우리 식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서구화가 진행되며 음식문화가

바뀌며 한국 전통의 사상 또한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음식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이러한 지혜를 살피지 않고 맛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시연회에서 불교계 큰 스님들의 상차림에 착안한 사찰음식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 석주 스님, 청담 스님 등 스님들이 진관사에서 드셨던 음식을 보면 수행의 지혜가 살아있다"며 "약 따로 음식 따로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데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관사는 16주 과정으로 '전통발효 음식 조리사 교육과정'을 통해 전통음식 조리사 교육 또한 진행하는 등 사찰음식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또 사찰음식 조리사로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다.

스님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찰음식 조리사 양성 및 창업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고운사 사찰음식체험관 개관식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9월 28일 사찰음식체험관을 준공개관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김재원 국회의원 등이 테이프커팅과 헌찬식을 가졌다.

사찰음식체험관은 3137㎡ 부지의 재래기와식 단층건물로 발효숙성항도방으로 건축되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대구 성관음사 법화경 사경 입재법회



대구시 남구 성관음사는 9월 28일 33관음응신 대불 복장 봉안 법화경 사경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경 사경 입재식에는 주지 일우 스님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성관음사는 주지 일우 스님의 30년 원력 불사를 이룬 주지 일우 스님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단 한순간도 연습은 없다"며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기에 법화경 사경을 통해 늘 하심하는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추대식



(재)한국근본불교 조계종(종정 의륜) 종정 추대식과 총무원 제8대 임원 취임대법회가 9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천 스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방장 용주 대종사 고불문 낭독, 교육원장 범등 스님 종단연혁 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어 부종정 덕산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종정의륜 스님에게 종정 추대패가 전달됐다.

종정 의륜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본불교 조계종을 연지 20년, 법의 꽃 삼천리에 활짝 피고 봄이 겨울 없어 꽃향기만 가득하다. 날마다 법의 바람이여 구름속의 빛을 보라"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산불교聯 사명대사 열반 추모법회

'사명대사 열반 403주기 추모대법회'가 9월 3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개최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이윤희)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미륵사 정각

스님, 금수사 경담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이윤희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불교TV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호국발원문, 헌화, 행차 소개, 봉행사, 추모사, 대제사, 추모가, 축원,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추모대법회에 앞서 (사)부산



영산재보존회의 호국 영산대제도 봉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을 중단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포교당으로 사용중인 보현사를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보현사 전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도들은 제주불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보현사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토지매각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의 불자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며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다 음

■ 보현사 매각의 부당성

1)매각이유 (관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 ① 사찰소재지로 이전,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② 주위 경쟁사찰이 많아 신도모집곤란
③ 불교대학운영으로 인한 사찰재정 미약
④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신도시인 노형으로 이전

2)매각 반대 이유

보현사는 제주시내 중심인 이도2동(도남동)위치하여 주위행정기관 및 교육

기관이 밀접한 요지임 사찰쇄락 주변 경쟁사찰등의 이유라면 능력없는 주지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능력있고, 포교의 사명감있는 새주지를 교체해야 할 정도임

① 중단법위반

중단, 사찰운영위원회 법에 의하면 사찰 매각, 대여등 행위시 신도회장이 당연직인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어야 하나 신도회장에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대적 하자이며

② 매각 공고 및 이후과정의 부당성

- 마지막에 개최한 매각 설명회에서 신도들은 여러 부당함을 들어 반발하자 추후 재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으나 설명회 당일 저녁 신문에 매각공고를 게재하여 이는 신도들의 의사는 전혀 안중에 없다는 걸 보여줌

- 매각공고(2013.8.1) 이전인 6월초 제주시청에 이전예정지인 노형동 3056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6월중순 허가를 받은바 신도들을 철저히 속이고 승락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전예정지 토지는 900여평인데 현 보현사부지는 2100여평이다. 도심요지 땅을 팔아 시내외곽지인 노형동에 1/2반 밖에 안되는 토지에 이전이란 말은 삼보 정재를 유실하는 경우이다.

- 이전 예정지 소유자와 현보현사부지 낙찰자는 동일한 또는 동일 관계인으로 추정되는바 소유자와 매수자 그리고 관음사 또는 당시 보현사 주지인 함결스님과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신도들의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무원장님께 호소 탄원등을 했고, 아울러 재무부의 부장스님과 면담을 통해 반대이유를 설명함

재무부는 여러 절차적 하자를 들어 본 매각과 관련한 중무행위를 중지시키고 총무원, 관음사 그리고 반대이사를 밝힌 신도 대책위원회 회의 3차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라고 제의한바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재추진보류 이를 수용한 신도대책위원은 문서를 통해 심의 일지를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음

- 이런 심의외 구성 등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관음사는 관음사중무실장을 통해 유선으로 신도회장 양방규회장을 타당한 이유없이 해임을 통보했음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감안해보면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각을 계속 진행. 관음사 신도들의 뜻은 전혀 고려치 않아 여러 전국불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주관음사포교당 보현사 매각반대 신도대책위원회 일동